기업 건강진단후 매출·영업이익 2배 늘었어요

중진공 中企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

규모·업종따라 '맞춤형' 진단 처방

기아자동차 및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주물 제품을 납품하는 장성의 ㈜에스제이금속. 지난 2007년 공장 건립을 마쳤지만 지역에 생소한 주물 공장이다 보니 전문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 부족과 생산기술 미비로 제품 불량률은 9%에 달했고, 제품원가는 치솟았다. 경영악화로 고민하던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개발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기업 컨설팅에 착수했다. 효과는 컸다. 불량률은 5%대로 떨어졌고, 시간당 생산성은 8.25% 높아졌다. 기술교육을 받은 인력의 업무 역량이 올라가자 설비고장률도 24.2%나 낮아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이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회사관리나 품질문제, 매출성장·수익성 악화에 부딪힌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중진공이 기업에 맞는 처방(컨설팅)을 내리고, 회생을 위해 전문가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공까지 논스톱으로 처리된다.

중진공이 기업 규모와 업종 등 다양한 유형에 맞도록 만든 13개 자체 진단 모형이 정확하게 기업을 진단한 뒤 기업을 '돈 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정확한 처방과 치유를 병행한다고 중진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에스제이금속은 컨설팅 이후 영업이익이 7.3%에서 9.1%까지 올랐다.

장성에서 납과 연을 제련해 수출하는 ㈜이맥스아이엔시도 컨설팅으로 덕을 본 경우다. 이 회사는 중진공의 진단 결과, 매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도출됐다. 중진공은 납 재생 사업 진출 등의 처방을 내리고, 자금을 연계지원, 제조설비를 늘렸다.

해법이 제시되자 매출액은 2010년 38억 원에서 2011년 56억 원, 2012년 150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2010년 4%대에서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SJ금속 관계자는 "신생기업으로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단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062-600-302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캐릭터인 '색동이'와 기념문구를 들고 창립 25주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 창립 25주년 내실경영 나선다

올 매출 6조3000억 목표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솔선수범'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여객기 4대가 늘어난 총 84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고수익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2013년 매출 6조3000억 원, 영업이익 36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출범, 17일 창립 25주년을 맞는 아시아나항공은 2월 현재 항공기 79대(여객기 68대, 화물기 11대)로 국제선 23개국 71도시 91개 노선 및 국내선 12도시 14개 노선, 화물 14개국 28도시 23개 노선을 취항하는 국적항공사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5주년을 기념,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17일부터 4월17일까지 두 달간 동남아 노선 항공권 구매 및 탑승 회원에게 아시아나 마일리지, 여행가방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임동률기자 exian@

건설공사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 추진 국토부 건설산업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건설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 보완을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건설산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견실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79.61 (+3.54)	▲ 512.53 (+4.54)	2.73% (0.00)	▼ 1083.80원 (-3.00)

기준금리 年2.75% 4개월째 동결

수출·소비심리 개선 반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동결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리스크 증가와 외환 변동성 문제가 경제를 압박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긍정적 흐름이고 광공업생산, 수출, 소비자심리 등이 개선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유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동결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불안요인에도 완만하게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추가적인 악재에 대비할 여력을 비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내 경제를 보면 1월 수출은 중국·동남아 등의 수요회복, 영업일수 확대 등으로 두자릿수 증가율(11.9%)을 기록했다. 12월 설비투자는 9.9% 늘었고 건설투자도 공공기관 청사 착공,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집행액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 제조업(1.2%)과 서비스업(1%) 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파와 잦은 폭설로 12월 소매판매액지수(-1.1%)가 11월에 비해 다소 부진했지만 1월 고용사정(신규 취업자수 32만2000명)은 나아졌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해외 위험요인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 직업개발훈련 사업주 운영방식 변경

올해부터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식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방식'으로 바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일 1년 단위로 진행되던 훈련공모와 외국인근로자 자율참여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시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나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사업주는 자체훈련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차 조합원 150세대 모집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2차 조합원 150세대를 모집한다.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차 조합원 274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건축계획변경심의를 접수한 상태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건설회사인 현대엠코(주)를 시공 예정사로 선정했다. 신탁 1위인 한국자산신탁㈜과 사무대리 계약을 맺어 자금관리도 안전하다.

아파트는 광주 남구 백운동 644-23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77㎡(23평) 123세대, 84㎡(25평·A형,B형) 404세대 등 총 527세대, 8개동으로 구성된다. 순환도로를 통해 광주 전 지역이 20분 거리이며 지하철 2호선 확정으로 백운광장역 역세권 형성과 나주혁신도시, 목포, 화순 등 시외로부터의 접근이 편리하다. 특히 인근에 광주 남구청이 이전하는데다 근거리에 생활편의시설들이 다양해 중심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계자는 "무등산과 금당산 조망권으로 청정자연의 사계를 볼 수 있는 등 광주 도심에서 보기 드문 자연친화형 아파트 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사업보다 규제가 적고 분양가가 저렴해 최근 건설업계의 관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합원 가입 문의(1899-1334).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美 '제이디파워'社 내구품질조사 기아차 쏘울 소형 다목적차 우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쏘울〈사진〉이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제이디파워'(J.D.Power)社가 발표한 2013년 내구품질조사 소형 다목적차 부문에서 150점을 얻어 내구품질 우수 모델에 선정됐다.

쏘울은 지난해 신차초기품질조사에서도 동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초기품질과 내구품질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량임이 입증됐다.

현대차 쏘나타는 내구품질조사에서 중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쏘나타는 이번 내구품질 조사에서 94점을 기록하며 도요타 캠리(104점), 혼다 어코드(107점), 닛산 알티마(110점) 등 주요 경쟁차종을 모두 제치고 중형차 부문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베르나는 전년도 146점에서 7점이 향상된 139점을 기록해 소형차 부문 3위에 올랐다.

제이디파워社의 내구품질조사는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과 변속기, 주행, 조향 등의 202개 세부항목에 대해 자동차 100대 당 불만 건수를 점수화 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아차와 현대차는 브랜드별 내구품질 순위에서 일반 브랜드 기준 13위, 14위에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